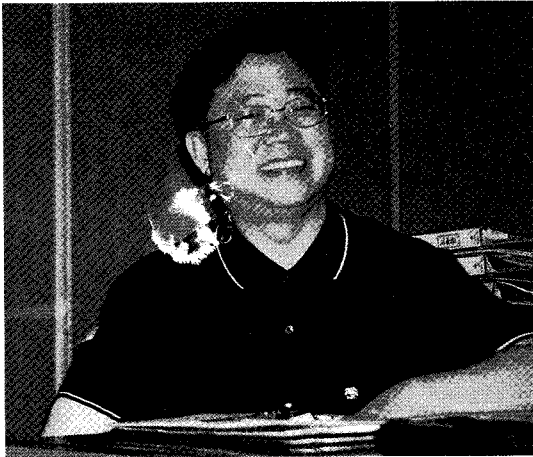


이지오픈필름 개발, 수입품 대체효과 이뤄 신용을 기업의 생명으로 삼는 경영체제 구축



▲ 박윤희 사장

매출액 매년 40% 신장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경원산업은 지난 93년 8월 설립되어 주로 다양한 폴리에틸렌 필름을 제조하고 있다.

종업원 10여명이 종사하는 작은 규모이지만 제품개발에 대한 열의가 남다른 모범적인 기업이며 매년 매출액 40%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93년 설립당시 주위의 도움으로 중고설비를 확보하고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비교적 운이 따랐다고 겸손해 하는 경원산업 박윤희 사장은 사장이라는 직함이 무색하리만큼 젊은 외모였다.

박 사장은 폴리에틸렌 필름 전문제조업체인 자강의 전신인 고려화학에서 12년간 근무하며 경리, 총무, 영업을 두루 섭렵한 후 93년 영업부장으로 퇴사했다.

경원산업을 설립 후 고려화학에서의 경력인 회사를 경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히는 박 사장의 올해나이는 마흔둘.

일에 몰두하다 보니 결혼을 생각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멋쩍어 하면서 이제는 결혼을 서두르고 싶다고 은근히 밝히기도 했다.

고려화학에서 함께 일한 김일섭 이사와는 독립을 계획하고 경원산업을 설립, 초창기 공장확보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동고동락해 온터라, 직원이기에 앞서 인생의 동반자라고 소개하는 박 사장은 지금도 김 이사가 운영에 있어 큰 비중을 맡아 주고있어 든든하다고 덧붙였다.

“저희 회사는 현재 김 이사와 제가 영업을, 생산 6명, 경리 1명, 품질관리 1명이 가족같은 분위기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품개발도 김 이사와 저의 몫인데 늘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여러 기업체연구소를 직접 찾아 다니면서 테스트를 실시하기도 하고 의견 교환 끝에 좋은 아이টে임을 발견하기도 합니다”라고 밝히는 박 사장은 전문적인 이론에 부딪칠 때면 해결하는데 곤욕도 치루지만 늘 새롭고 우수한 제품을 개발한다는데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멀티팩용 수축필름 생산

93년 설립 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경원산업은 현재도 주야 24시간 풀가동을 늦추지 않고 있다는데, 지금과 같은 IMF 시대에 좀처럼 듣기 힘든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경원산업은 캔맥주, 콜라, 사이다, 식혜 등을 포장하는 LDPE수축필름 생산에 활기를 띄고 있는데 이 제품은 국내 음료업체는 물론이고 수출시장에도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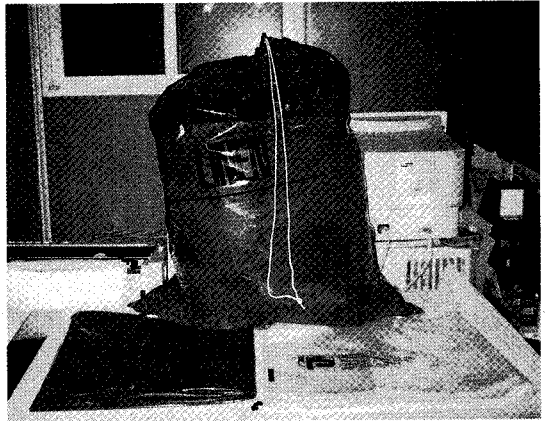
또한 이외에도 산업현장에서 상품을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보호테이프용 필름, 식품포장용 LDPE 필름, 저온 켈링을 요구하는 저온접착성필름 등 소량 다품종을 요구하는 각종 특수 필름을 업계가 요구하는 특성에 맞추어 공급하고 있다.

경원산업의 이러한 생산방식은 소비자가 각자 필요한 소량의 기능성 필름을 생산하기에는 코스트 측면, 작업공정상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소비자와 경원산업이 공동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97년 개발에 성공한 멀티팩용 수축필름은 국내 맥주메이커에서 수입해 오던 LDPE수축필름을 대체한 것으로 대형 할인매장에 6캔용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이는 상표를 확실히 표시하고



▲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포장한 제품



▲ 미국으로 수출되는 쓰레기 백

있어 광고효과와 상품가치를 높일 수 있고 오염과 먼거리로부터 보호되는가 하면 물속이나 냉장실에 포장 그대로 보관할 수 있다. 또한 더욱이 판촉회사에서 디자인 변경이 용이하고 종이 포장비용에 비해 가격이 약 1/3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제품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음료회사에서 이 제품을 적용하기 위해서 신규포장설비를 투자해야 하는 면 때문인데 이 문제는 코스트 측면에서 볼 때 1~2년 내에 설치비용을 감가상각할 수 있으므로 향후 멀티필름의 수요는 증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김 이사는 긍정적으로 시장확대를 예측했다.

수출용 Waste bag 생산, 수출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급급해 있는 반면 경원은 연포장가공 전문회사인 삼진화학(주)과 공동으로 easy open film을 개발하는 개가를 거두었다.

이 제품은 그간 국내수요의 100%가 수입에 의존해 오고 있던 터라 국내업체들에게는 여간

측정항목		FILM종류	EOF #1	EQF #2
두께		단위		
		μm	40	40
인장강도	MD	kg/cm ²	330	320
	TD		250	230
인장산율	MD	%	360	440
	TD		900	920
표면장력		dyne/cm	38	38
투습도		g/m ² · day	7.6	7.6
내열온도		℃	121	110
가공적성			EL. DL	EL. DL
피착재료			PP	PP · PE
SEAL · 온도범위		℃	170~220	160~210
SEAL · 강도 對 PP		kg/15mm	1.0~2.5	1.0~2.0
박리형태			응집파괴	응집파괴

회소식이 아닐 수 없다.

EOF라는 상품명으로 본격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이 제품은 EOF1과 EOF2로 구분되어 있는데 포장시 열접착 후 개봉이 용이하며 운반시에도 손상이 없을 정도의 부착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 수입품보다 20%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어 유저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존용도 외에도 의료용, 수출용 김치, 김제품 등으로 적용분야가 다양하다.

다만 아직 시장이 크게 형성되지 못해 소롯트 생산을 원하는 업체에 유리한 정도지만 경원이 이 제품에 대해 업체와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고 관심을 보이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아직은 매출의 대부분이 내수시장이 차지하고 있으나 수출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경원은 현재 Waste bag을 생산,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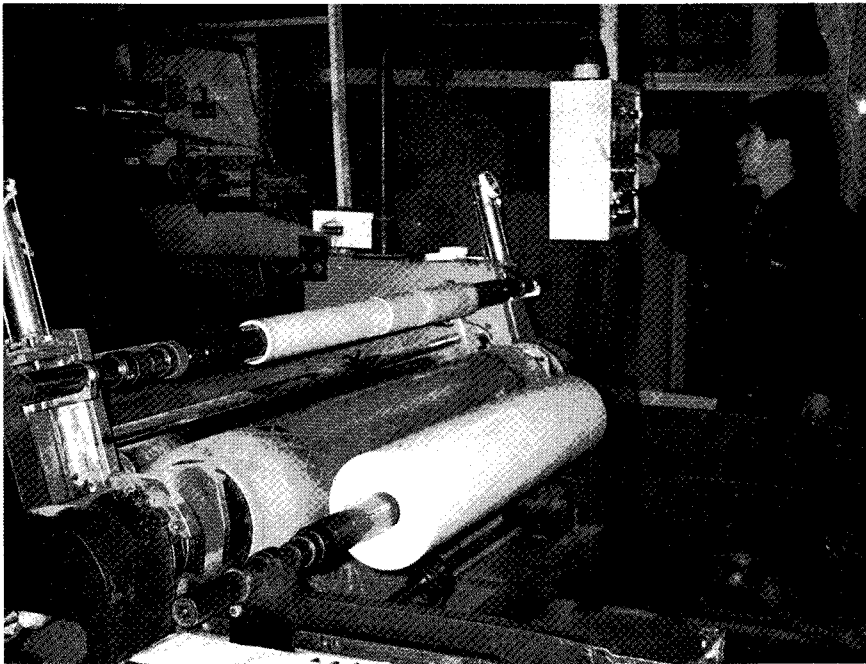
이 제품은 낙하충격강도가 우수한 PE 원료를 이용하여 적색, 청색, 황색, 투명, 흑색 등 5종류의 색상으로 생산된다.

미국에 수출하여 월 5만불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 제품은 병원에서 수출환자의 의료폐기물을 소각, 매각, 재활용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환경친화적인 제품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현재 투명 도전성필름이나 대전방지용 필름을 전자, 반도체포장용으로 개발하기 위해 한창 진행 중에 있고 특히 소비자의 제2차 후가공 공정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을 공급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박 사장은 각국의 신소재 레진을 수입, 검토하여 국내실정에 맞게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국산화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대체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국내 사용자들이 국산제품에 대해 신뢰를 갖지 못해 사실상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품목이 많은데 이에대한 의식의 전환이 더 활발한



◀ 경기도 군포의 위치한 경원 산업 공장 내부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박 사장은 안타까워 했다.

자체공장 확보위한 노력

‘아직은 공부하고 연구하는 단계’라고 겸손 해하는 박 사장은 제품에 대한 정직, 거래처에 대해서는 신용을 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펼치고 있다.

“경원산업은 아직은 아주 작은규모의 소기업입니다만 앞으로 포장업계에서 기술과 제품을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런날이 올것을 기대하며 경원의 가족들은 어려움도 잊은채 쉼없이 기계를 돌리고 연구개발에 정성을 다할 것”이라는 박 사장은 안정된 작업 여건이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자체 공장을 확보를 위해 매월 매출의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있으며 공장확보와 함께

품질관리에 더욱 주안점을 둘 것이라는 소박한 포부를 피력했다.

국내 기업들의 어려운 현실이 연일 보도되는 마스크를 접하며 더욱 어깨를 떨어뜨리게 되는 시점에서 조금씩 커나가고 있는 경원산업의 모습은 오랜 가뭄을 참아내는 우리 포장업계에 소나기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

이선하 기자

